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9)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자율적 건축 ②: 바로크 건축과 자율적 건축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C-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C-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자율적 건축 ①
9. 자율적 건축 ②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Ledoux는 당시 세간에 유행하던 건축의 흐름에 익숙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시대가 매우 중요한 때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고전건축으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건축을 Revival시킴에 있어서 필수적이었던 형식적인 세부항목에 주목하지 않고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물리침으로써 건축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현하려는 의지가 충만하였다. 따라서 Ledoux는 건축물에 관한 개념 및 이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제시하는 물리적 현시체로서의 건축물을 새로운 개념, 즉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고 추구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실현된 건축안 가운데 가장 늦은 것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건축사적 관점에서 보아 중요한,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입시세 징수소 계획'에서는 고대의 모티브들을 직설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이 계획안에서는 그가 이것들을 변형하여 새로운 요소로 제시하려는 정력적인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이 고대의 모티브들은 건물 내에 적당히 조합되어 제2의 요소, 즉 부차적인 요소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한가지 꿈을 수 있다면 그가 완전히 새로운 건축의 방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전통적 건축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그의 작품들은 그가 연구하고 추적한 새로운 건축으로의 경로들을 표현하고 있던 하지만 연대기적 분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건축언어의 발전의 단계는 시간의 추이에

* 본명 김원식

따라 체계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자주 그 전후가 뒤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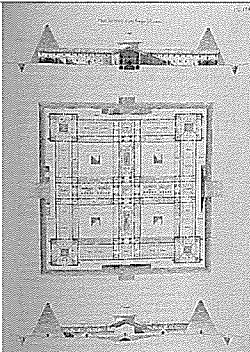
입시세 징수소는 낭만주의 건축에서 찾아보기 어렵던 거대주의적 경향, 단순한 형태의 건물의 외양 그리고 새로운 건축의 개념 등 현대의 언어가 과거의 언어와 함께 섞여 있는데 Ledoux 자신이 아직은 그의 고유한 건축언어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 하다. 반면 프랑스 혁명 후 칩거하며 계획한 비교적 대규모의 계획안 중 대표 주조소 계획안(大砲鑄造所計劃案)은 이와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주조소 계획안은 정방형의 넓은 토대 위에 십자형의 건물 그리고 피라미드형의 주조소 각 피라미드를 연결하는 부속 건물들을 수용하고 있다. 토대의 네 모서리에 피라미드가 배치되어 각기 90도 방향으로 배치된 2동(棟)의 긴 건물들로 연결되었으며 중앙의 매스는 십자기를 이루는 4개의 연결동에 이어서 있어서 일견 바로크적 고전주의의 시대에 볼 수 있는 사슬(enchaînement)등으로써 모든 부분들이 긴밀히 연결되는 것을 연상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크 공간의 특성이었던 건물의 중앙부의 강조 및 단부의 정자(또는 부속동)가 배치되었으며 일부는 이 정자들을 파사드의 중앙과 연결하고 있다. 전체 계획안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형태로 찍어 놓은 듯한 성격을 지니므로 바로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관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자세한 분석은 사슬로 이어진 바로크 시대의 고전주의의 공간 구성과는 전혀 다름을 알려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분들이 상호 잘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객체로서의 부분들은 고유하고 독립적인 생명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자율적인 건축의 개념으로써 각부분을 독립시키는 수법은 18세기말에 일어났던, 건축을 일신하는 과정 중 하나로서 가장 중요한 변천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자유의 법칙은 건축형태가 건축 이외의 것, 건축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견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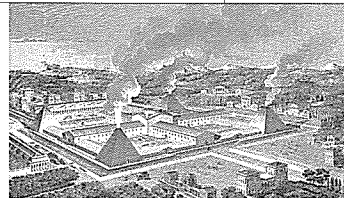
여기서는 거주성이 건축의 표현성보다 우선하여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시대엔 이런 사상은 자연을 모범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론적, 사상적 근거를 자연에서 발견하게까지 되었다. Rousseau가 자연에서 사회의 체계에 관한 생각을 찾은 반면 Ledoux는 자연으로부터 건축 시스템의 법칙을 구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Chaux의 소금도시를 위한 두 번째 계획안에서 Ledoux는 건축물들을 서로 격리시켜 분리하게 된 이유를 Rousseau풍의 주장으로써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Remontez au principe. Une vice accrédité produit tous les malheurs; consultez la nature: partout l'homme est isolé. (원칙으로 돌아가시오... 널리 유포된 한 개의 악은 모든 불행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자연에게 물어 보시오; 어디에서든 인간은 유리되어 홀로이다')¹⁾ 바로크 사슬로써 충분히 반영되던 혁명 이전의 봉건사회 체계의 원칙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이 구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미술 또는 건축에서의 형태가 사회의 구조 또는 국가의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아 직설적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여러 건축 또는 미술에서 표현되는 형태를 만드는 원칙은 사회에 존재하는 특성의 개념 또는 사유의 방향과 동일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일어난 사회적 변형, 사상의 발전에 평행하여 미술 또는 건축 등 시각 예술 분야에 있어서 미학적 규칙들이 효력을 잃게 된 사실은 매우 주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미술가 또는 고전주의 이론가들이 애지중지하였던 리듬, 각 부분간의 조화, 균형 등의 원칙은 바로크의 사슬을 만드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효율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이었지만 입시세 징수소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없어지고 이전의 건축에 비해 - 그리고 대규모의 건축에서 발견되는 - 훨씬 자유로워진 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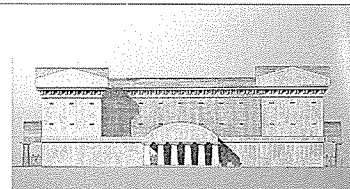
1) Ledoux, C-N: 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oeurs et de la législation (예술, 관습 그리고 법체계의 관점에서 검토한 건축), Hermann, Editeur des sciences et des arts, Paris, 1997. p. 90.



대표주조소: 평면



대표주조소: 조감도



엑스의 감옥(Prison d'Aix)

의 구성, 내부 배치의 자유성 등이 아주 쉽게 발견된다.

새로운 구성 방법은 각 부분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을 손상치 않고 자유롭게 재결합하는 것인데 여기서 요소들의 형태는 오로지 적합한 합목적성을 따를 뿐이다.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요소 내에 내재하는 고유한 법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다 보니 당연히 바로크의 법칙에는 상반되는 새로운 형태의 계획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계획안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새로이 해석하며 각 부분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논리적인 단계로 이해하고 연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부분이란 존재치 않는다. 오로지 독립적인 단위들만이 있게 될 뿐이다. 이처럼 내부의 내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오브제의 형태는 조소적 효과의 추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매스의 리듬, 장식을 첨가함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회화적 구성(picturesque Composition)의 특징이었던 구성 방법들은 그 중요성을 상실하였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도래와 병행하여 단번에 바로크의 투시도법적인 구성 및 시각적 연출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대신에 단리(單離), 즉 Barry(바리)의 저택에서 볼 수 있듯이 요소를 자존적인 구성을 통하여 분리하는 수법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더 이상 바로크적 고전주의의 건물에서 선호되던 선의 배합을 통하여 중앙의 건물을 토대와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채용되지 않게 되었다.

르네상스 건축과 바로크 건축은 다른 예술 분야와 연결하여 고대의 모델을 발전시킴으로 외재하는 법칙에 의존하여 대상 건축과는 전혀 무관한 형태를 창조하곤 하였는데 Ledoux의 시대에는 건축물 또는 건축요소에 내재하는 법칙을 따름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병행하여 일반적으로 비본원적인 요소인 장식은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모두 거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Tout ce qui n'est pas indispensable fatigue les yeux, nuit à la pensée et n'ajoute rien à l'ensemble.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눈을 피로하게 하고 사고(思考)를 방해하며 전체에 아무 것도 보태 주지 못한다.)²⁾

Ledoux의 이와 같은 주장은 '...des surfaces tranquilles, peu d'accessoires (고요하고 평온하며 부속물이 없는 외양)³⁾ 즉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 매우 기능적이고 순수한 형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Ledoux의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장식이 전혀 없는 벽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농가(Ferme)건물, 또는

엑스의 교도소(Prison d'Aix 프리종 텍스)에서처럼 본원적으로 장식을 추가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건물들뿐만 아니라 주범(柱範)을 채택해야만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장식적인 요소들을 배제시키지 않은 건물들도 또한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런 예의 하나로 알월 대저택(Hôtel de Hallwyl 오델 드 알월)을 들 수 있는데 원주와 조각물이 아직도 건물에 남아 있다. 그러나 원주와 조각물은 이전의 건물에 비하여 아주 한정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축적(Tectonic)인 것에 대한 새롭고 정열적인 관심은 기본 기하학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배제하고 거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예전의 Palladio 및 그런 유형의 건축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였던 Cornice, 벽기둥(Pilaster) 또는 거대 기둥(Colossal Column) 등의 채용은 더 이상 미학적으로 논리적인 적법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즉 Palladio의 건축은 석재가 지닌 본원적인 재료의 성격을 확인, 인정하고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적인 구조 요소들-Cornice, 벽기둥, 거대 기둥을 매개로 하여 전체를 소위 융합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논리에 어긋나는 구축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석재는 다시금 석재로서의 특성을 재확인 받고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각 재료는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법칙을 인정한 순간부터 유기적 형태에서 나타나는 생기 없는 물질이 더 이상 아닌 것이 되어 바로크식 물활론적 우주론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 전의 시대에는 남상주(男像柱 Atlas, Atlantes 또는 Telamon), 여상주(女像柱 Caryatid) 또는 헤르메스(Hermes)신의 형상을 한 지지체, 동물의 발 또는 굽 모양의 테이블 지주, 생선의 아가리 모양을 한 급수전(給水栓) 등이 사용되었지만 계몽주의 시대에는 아주 원천적일 뿐만 아니라 좀더 직설적이며 솔직하고 양식 있는 방식, 즉 원주는 단순히 원주로서 표현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징하는 형태,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는 모든 방식을 거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상징적 형상으로 구현하고 표현하는 신인동형론적(Anthropomorphic) 방법 또는 의인화(Personification)는 그 이후에도 계속 잔존하여 타율적 시대의 잔존물들의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미 본체도에 진입한 새로운 사고 방식은 형태의 자율성, 자율적인 형태의 개념을 적극 존중하고 채용함으로 정당한 재료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Ledoux는 아직도 국가 전체에 그리고 미술계에 있어서 바로크식 조합, 바로크식 사술의 채용이 맹위를 떨치던 때에 이러한 유희했던 근본적인 법칙을 재발견하였다. 이제는 브루넬레스키

2) op. cit. p. 169.
3) op. cit. p. 108.

(Brunelleschi), 미켈란젤로(Michelangelo), 베르니니(Bernini) 등의 미학우선주의의 인물들로 대표되던 건축가-조각가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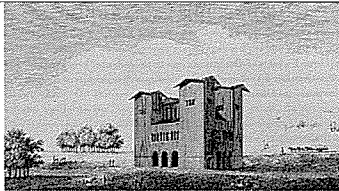
언급한 '형태의 자율성', '자율적 형태'는 Ledoux의 건축에서 발견되고 있다. 4개의 망루가 있는 주택, Terrace 지붕이 있는 주택, 브장송(Besqnon)의 상인의 주택, Chaux의 고용인 주택 등은 이러한 개념을 잘 설명해 줄뿐만 아니라 구현하고 있는 건물들이다. 4개의 건물은 모두 다 단순한 사각기둥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전의 건축에서는 오로지 지지체에만 채워졌던 형태이다. 4개의 건물에서 공히 사각기둥은 단순 구조체가 아닌 적극적인 매스 즉 건물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과거의 건축에서처럼 요소나 형태에 따라 분리, 구분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과 일체가 되어 전체가 하나로 인식되도록 하는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 이상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재료가 아니라 자율적 감수성, 즉 오늘날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볼 수 있듯이 오브제 자체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려 하고 건축의 형태는 외부의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오브제 자체의 형태에 의하여 즉 자율적 개념에 의하여 결정되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원주를 발, 배, 머리 등으로 상징하던 이전의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 건물들에 있어서 외벽은 이전의 바로크 건물에서 그랬듯이 더 이상 커다란 개구부들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그 표면에 부조를 담고 있었던 단순한 캔버스적인 역할로부터 해방되었다. 내부의 벽은 공간을 한정하고 닫는 고유의 목적을 구체화함으로써 더욱 더 강력한 생명력을 부여받게 되었다. 새로운 모양과 형식으로 나타나는 평지붕은 과거의 건물처럼 꼭대기를 왕관(Couronnement)처럼 장식하거나 당시의 초월적 미학개념 및 사고에서 말하는 하부로부터 상부 그리고 그 위의 또 다른 형이상학적 세계로 이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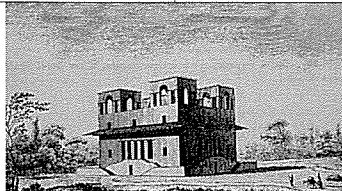
기 위하여 배치한 전이요소(轉移要素)가 아닌, 단순히 공간을 마감하는 덮개에 불과하다. 전반적인 변화를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의 다양한 건축의 요소를 뒤범벅하여 배치하는 수법으로부터 요소를 단순화하고 그 요소는 공간을 한정하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된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당시의 회화 및 조형예술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보자. 새로이 등장한 고전주의적 회화의 특징 중 순수형태 및 선명하게 구분되는 윤곽의 추구, 일체의 공상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 등은 부분들을 분리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적 건축의 요구들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회화에 있어 Picturesque적 기법의 약화와 포기는 건축에 있어서 투시도적 기법의 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18세기말에 있어서 병리적 현상 가운데 하나로 급격히 번진 실루엣 초상화의 보급을 들 수 있다. 투영된 모델의 그림자를 따라 만들어진 실루엣은 오브제를 그 주변으로부터 명확하게 분리시킴으로 모든 부차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본질적인 것만을 엄격히 한정하는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마치 건축이 기본 기하학에 속하는 원초적 형태로 회귀하고 있듯이 회화예술은 선을 단순화하는 정묘한 방법으로 회귀한다. 판화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뷔랭(Burin)판화 및 석판화는 바로크의 메쯔-틴토(Mezzo-Tinto) 수법을 몰아내었다.⁴⁾ 이것은 어슴푸레하게 윤곽을 처리하여 주변으로 전이시키는 것, 그리고 오브제를 명확히 강조하지 않고 주변의 사물들에 용해되는 듯이 처리하거나 눈속임(Trompe-l'oeil)등의 수법을 채용하여 재료를 흉내내어 기만하는 것 등을 포기하고 각 오브제를 명확히 부각시키며 순수하게 오브제 또는 재료의 원초적 성격을 외부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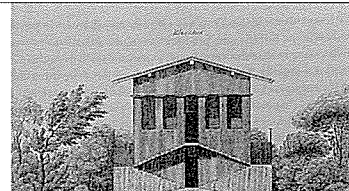
평면의 관점에서도 자율적인 건축의 등장을 조명하기 위하여 Ledoux의 건물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발견된다. Eaubonne(오본느)소재 Maison de



Chaux의 농가



전망대가 있는 주택



Chaux의 고용인의 주택

M. de Mézières(메종 드 무슈 드 메지에르: 드 메지에르씨의 주택)은 현관으로부터 이어지는 시선을 조정하기 위하여 식당의 배치가 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Maison de Mademoiselle de Saint-Germain(메종 드 마드모아젤 드 생-제르맹: 드 생제르맹양의 주택 1772)과 Ledoux 자신의 저택(1780)에서는 계단실을 중앙에 둠으로 건물의 주축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동선의 파괴는 바로크식 건물에서 발견되는 유기성의 종말을 의미한다. 내부에 있어서 애용되던 대청의 원칙, 균제, 비례의 법칙 등은 기능적 배치원칙에 의하여 교체되었다.

Chaux의 문인의 저택(Maison pour un homme de lettres)과 4가정을 위한 주택(Maison pour quatre familles) 계획안은 새로운 사상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두 경우 모두 층의 위계 그리고 요소들을 수평 및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어떠한 요소의 분절화 및 점강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일체의 창문들은 틀이 제거되었으며 장식이 전혀 없이 매끄러운 벽체로부터 완전히 유리되었고 상부의 덮개 요소는 자율적인 평지붕으로 구성되었다. 장식을 사용하던 바로크의 구성은 엄격히 건축술적인 배치로 대체됨으로 인해 매스의 연출이 주된 예술적 기법이 되었다.

Ledoux의 작품은 바로크적 고전주의의 전통에 대항하고 있는데 당시의 신고전주의적 경향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놀랍게도 그의 건축은 오히려 20세기의 모더니즘과 깊은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단순히 피상적인 것인지 또는 우연한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 관한 질문, 또는 그의 건축은 건축사에 있어서 면면히 흐르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시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 할 수 있다. 19세기는 과연 비생산적인 모방의 세기였는지, 또는 19세기에 나타나는, 연속적인 흐름이 중간에 끊기어 생긴 단전현상에도 불구하고 후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율적 건축을 받아들였어야만 하는 절대적 필요성의 건축적 요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완곡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세부 항목들은 유행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타율적 원칙으로부터 자율적 원칙으로의 충격적인 이행은 단순히 어떤 순간의 변덕스런 변화로부터 태어난 결과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

Ledoux의 자율적 건축사상은 Paris주재 외국인 건축가들 그리고 사상적으로 그와 동참하고 있는 외국 건축가들에 의하여 소개되고 수입되어 유럽 전체로 널리 영향

을 미쳐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새로이 소개된 자율성의 건축은 Ledoux의 건축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바로 후대의 건축가들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들은 훨씬 더 명확한 개념을 도입하고 공식화하였으며 Ledoux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시각을 분명히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Ledoux의 자율적 건축에 대한 사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

Ledoux의 신이론을 대중화한 사람은 Boullée의 제자인 Jean-Nicolas-Louis Durand(장-니콜라-루이 뒤랑)이다. 그의 저술들은 이탈리아와 독일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소개되었고 1800년 직후부터는 Ledoux와 Boullée의 사상과 동일한 관점의 이론들이 각처에서 공식적으로 교습되었다. 서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혁명을 전후로 하여 건축의 개념에 있어 대단히 놀라운 변혁이 있었다. 전기는 전통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후기는 새로운 사상의 창조정신으로 충만하였다. 프랑스 고전주의의 교훈을 충실하고 완전하게 구체화한 Blondel의 저작은 불과 30년 후 Ledoux의 저작으로 연결되며, 이것은 제1제정시대 및 그 후속기간 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Durand의 Précis des leçon d'architecture(프레시 데 르송 다쉬텍뉘르: 건축강의개요)로 이어지는데 역시 불과 30년이 필요하였다. Durand은 혁명 후기의 대표작 인물 가운데 한사람으로 모든 점에서 Blondel과는 상이하다. 그는 Paris의 왕립 기술학교(École royale polytechnique de Paris) 시절부터 새로운 이론을 보급시켰다. 그의 저서 Traité(트레테: 건축개론)는 바로크적 고전주의를 공격함으로 시작된다. 즉 로마의 성베드로 사원, 앙리 라브루스트(Henri Labrouste)가 설계한 빠리의 빵 떼옹(Pantheon)은 지어지지 말았어야 할 본보기임을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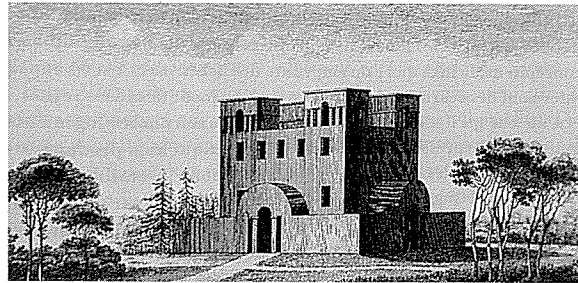
타율적 건축을 하고 그에 몰두하는 건축가들에게 한없는 공부의 대상이 되었던 주범의 형식은 Durand에게 있어 더 이상 관심을 쏟을 가치가 있는 본질적인 항목이 아니었다. Durand에게는 장식(Ornament)적 요소를 건축물에 첨가한다는 것이 매우 우습고 비논리적인 것이었다. 그에게 건축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울 뿐이며 그의 목표는 오로지 건축의 유용성(Utility)이지 감각적인 즐거움(Agrément)이 아니다. 또한 새로움이란 기능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첨가함으로 개량하는 것은 더욱이 아니다. 그는, 건축은 그 자체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londel은 단조로운 평면측량(Planimetry)에

4) Burin(부링)은 동판화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강철의 펜이다. Mezzo-Tinto(메조-틴토)는 명암에 의한 동판화 기법이다.

대해 조심하고 시각적 효과를 잊어서는 안됨을 주장한 반면 Durand은 오로지 단순한 평면에서 해법을 찾았을 뿐이다. 그는 파사드로부터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을 조롱하였다. 이는 - Blondel의 생각과 많은 유사점에 못지 않게 차이점 또한 많은 - Le Corbusier의 '평면은 발생기이다 (Le plan est le g nrateur)' 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비교하여 고찰할만한 사항이다. Le Corbusier의 격언적 공리에 비견될만한 원칙을 Durand은 다음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였다: '건축가가 담당해야 할 것은 오로지 배치이다 (C' est de la disposition seule que doit s' occuper un architecte.)'

Durand에게 있어서 비트루비우스 이후 끊임 없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수많은 저서의 원인이 된 인간의 신체로부터 유추하는 비례체계는 주범의 모델로 사용되지도 않았고 되어질 리가 없었다. Durand이 제시하는 평면들은 거의 다 사각형을 규칙적으로 잘게 분리하고 사각형의 연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일견 빈곤하고 너무나 단순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800년의 이론을 오늘날의 시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오로지 바로크의 고전주의의 개념에 대립하는 항목으로 볼 때 그 심오한 뜻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Durand의 이론은 새로운 건축의 도그마,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는 정도까지 숭고화된 건축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건축물들은 동일한 원칙을 따라서 다루어져야 하며 그 구성의 메카니즘은 별개의 것. 상이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Durand의 스킴은 모든 과거와의 연결성 그리고 미에 관한 이전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된 새롭고 자율적인 해결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의 시스템은 확실한 논리성을 보여 주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계획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하학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며 부분들의 완전한 동등성과 전체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다. Durand은 Ledoux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의 규범을 제의하였는데 이에 의한 내부배치는 한편 어느 정도 바로크의 것에 가까운 내부배치, 또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우며 (plan libre: free plan) 그로부터 유추되는 단순한 내부를 제시하고 있다.

대저택, 공원 등 대규모 바로크의 평면은 그 축, enfilade(엥필라드), 산책로 등을 사용하여 예정된 지점으로 인도하며 지정된 경로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동선의 흐름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공원에서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부차적인 통로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Durand 등의 자율적 건축 개념의 건축가들이 제시하는 자유칸막이를 사용하는 공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이와 달라진다. 여기서는 '엥필라드'를 따를



Chaux의 문인의 주택

필요가 없어진다. 어디서건 기능적이고 짧은 연결만이 있을 뿐이다. 당시 이러한 증후로서 바로크 공원을 멀리하고 영국식 정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어났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영국식 정원은 주산책로 및 부산책로가 설치되는데 그 차이를 가까스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두 가지 산책로의 식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공원의 산책인은 항상 눈앞에서 제기되는 선택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산책로를 거닐며 매순간 자기의 자율적 판단, 자주적 행위를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원을 창조하는 건축가, 디자이너들 역시 계획안을 만들 때 주어진 규칙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영감을 좇음으로써 사유와 결정(決定)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 바로크의 인간은 복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크의 계획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계획안을 작성한 사상, 그리고 실현된 건축 및 정원 등의 오브제에 흡수되어 복종하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의지를 상실하게 한다. 반면 바로크 이후의 인간은 이처럼 오브제의 영역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는다. 가구의 변화에 있어서도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1800년 이후의 가구들은 실내의 공간에서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 이전까지는 가구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결정적인 성격을 지녔던 반면 1800년 이후로는 가구에 이동성(mobility)이 부여되어 전체의 분위기를 해침이 없이 어느 곳에든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